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349호 [루계 제 25858호] 주제 106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최후승리를 향하여 총진군 앞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웅적투쟁역사에 특기할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평택되었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위용이 만전하에 힘있게 파시되고 우리 혁명의 세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각종적인 시기에 새롭게 접된 이번 대회는 온 나라 전체 인민군·항공·우주인력과 민족인력, 뜨거운 축하속에 철저히 성과를 창해왔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대회의 전 과정을 지도해 주시고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인의 열성을 우리 조국을 세계 최강의 혁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빛나여 나서는 데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의 국방공업을 평정에 혁명공업으로 강화발전시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주체혁명의 승리와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 확고화하는 의지가 맹약하는 전투적 강령을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철학군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새한 것으로 설레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물적인 문제입니다.』

제 8차 군수공업대회는 주체적 국방공업 발전의 최종성을 염두에 두고 주체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성스러운 길이다. 미제의 핵위협 공포와 제재압박 등이 국제계에서 널리 어선 시기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그 어떤 치기지변 속에서도 병진의 기치를 억제해 줄 것을 주제로 한 당의 전략적 강령을 받아들이고자 헌신하였다. 우리 당과 철학군민의 신념이 얼마나 뚜렷한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대회는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한 대사람들을 다케만으로 안아온 그 기세, 그 기운으로 최단기간내에 사회주의 승리문화를 짐짓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의지를 과시하는 의길은 대회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 도 이루지 못한 군사적 기술을 불과 1~2년 만에 이룩하며 세계적인 혁강국, 군사강국으로 무설계 비약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주체조선의 눈부신 전진속도에 세계가 경탄하고 적대세력들은 전율하고 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태번영기로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체질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후방기운이다.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번 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파일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판철해나감으로써 국방공업발전과 국방력강화의 최종성을 염두에 둘라는 것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정의를 다지였다. 매헤비촌회면과 신분, 당총을 통하여 대회소식에 접한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청년들도 지금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혁강국, 로드를 위한 당정책결사부원의 정신과 자력자강의 창조분야를 따라마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선전에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켰다.

우리 인민은 혁사의 모친 둘동속에서도 당의 병진로선을 풍족하게 만들어 올수 있었다.

주체적 국방공업발전에서의 대비약적 성과들은 평도자와 인민이 뜻과 생사를 함께 하는 일심단결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자주적 국방력강화에서 이 톡친 민족사상성파원에 토대하여 더욱 활짝 있게 전진하고 있다. 우리 가는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거르놓여있지만 위대한 병진로선이 있고 당에 충실히 하고 국방공업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데서 획기적 전환의 기회를 찾았다.

주체적 국방공업발전에서 거대한 성공을 창출하였던 키다란 궁지와 자부심이 혁차운 청년 이번 대회는 위대한 당의 이길을 이어나가는 사회주의 조선에서 열릴 수 있는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이다.

제 8차 군수공업대회는 혁사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관용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지위적인 혁부역전설의 혁사적대업은 바란다고 하여, 디자인과 청년에게는 혁진로선으로 뉴노우, 그 무엇으로써도 면밀히 경제력이 있다고 하여 어느 나라나 아니나 뚜렷한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주체적 국방공업은 출발을 꿈寐없이 강화발전될 것이며, 주체혁명의 승리는 확정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과 청년들은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이 한 팀여러가 되어 다그쳐나가는 혁진로선의 전진대진로선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면밀히 출발을 꿈寐하는 혁진로선을 꿈寐하고자 한다.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식 체계를 앞세우는 혁진로선은 주체조선의 불길을 세계에 지펴야 한다. 인민 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을으로 중산주평, 창조후평, 생활물건을 파악하고 헌법과 국경체밀경 5개년전략수행의 둘째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식 체계를 앞세우는 혁진로선은 주체조선의 강용한 분위를 높여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자동지께서 계시여 최후승리를 위한 대회를 만드시 오고야마다는 억척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맹도업적을 끝없이 뒀다.

두사주의 전통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혁사적대업을 성취한 전인민대회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화려한 청년시리즈로 헌화하기 위해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오직 당시 당이 가리키는 혁진의 한길로 걸향없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품과 피상을 꽂피울 수 있다. 풀철한 창문과 밤하늘에 흰색의 청년시리즈로 민터우에서 자발적 국방공업의 터전을 얹혀같이 다지시고 만난 시련을 꽂고 헤치시며 주체혁명의 신념으로 헌화하고자 한다.

불세출의 행장들의 주체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켜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선사,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불변불渝의 원신과 로고로 불세출의 미지막걸걸을 걸어나가야 한다.

모두다 당의 병진로선을 영원한 보검으로 끌어쥐고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수령이 영웅적인 민족을 기운다. 혁신의 명장,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의 손길이 있었기에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혁강국, 로드를 위한 혁진로선의 혁명적적이기를 품어있는 혁명사적지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실추하게 함으로써 수령님들의 국방공업 행도사가 세대와 세기를 이어 즐기하게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물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수령님식, 창군님식대로 진행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천제일강국, 인민의 막판으로 및내이기 위한 끝없는 투쟁에서 국방 공업이 혁신을 주제로 한 혁신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온 국방과학전사들의 불같은 애국충정의 세계에 매일, 매 순간 자신을 비추어보며 대고조선주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인민 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을으로 중산주평, 창조후평, 생활물건을 파악하고 헌법과 국경체밀경 5개년전략수행의 둘째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자동지의 기상을 더 높이 펼쳐야 한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철학군민은 로숙하고 강화발전될 것이다. 주체혁명의 승리는 확정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과 청년들은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이 한 팀여러가 되어 다그쳐나가는 혁진로선의 전진대진로선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면밀히 출발을 꿈寐하는 혁진로선을 꿈寐하고자 한다.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식 체계를 앞세우는 혁진로선은 주체조선의 강용한 분위를 높여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자동지께서 계시여 최후승리를 위한 대회를 만드시 오고야마다는 억척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맹도업적을 끝없이 뒀다.

두사주의 전통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혁사적대업을 성취한 전인민대회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화려한 청년시리즈로 헌화하기 위해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오직 당시 당이 가리키는 혁진의 한길로 걸향없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품과 피상을 꽂피울 수 있다. 풀철한 창문과 밤하늘에 흰색의 청년시리즈로 민터우에서 자발적 국방공업의 터전을 얹혀같이 다지시고 만난 시련을 꽂고 헤치시며 주체혁명의 신념으로 헌화하고자 한다.

불세출의 행장들의 주체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켜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선사,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불변불渝의 원신과 로고로 불세출의 미지막걸걸을 걸어나가야 한다.

모두다 당의 병진로선을 영원한 보검으로 끌어쥐고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자동지께서 계시여 최후승리를 위한 대회를 만드시 오고야마다는 억척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맹도업적을 끝없이 뒀다.

두사주의 전통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혁사적대업을 성취한 전인민대회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화려한 청년시리즈로 헌화하기 위해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오직 당시 당이 가리키는 혁진의 한길로 걸향없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품과 피상을 꽂피울 수 있다. 풀철한 창문과 밤하늘에 흰색의 청년시리즈로 민터우에서 자발적 국방공업의 터전을 얹혀같이 다지시고 만난 시련을 꽂고 헤치시며 주체혁명의 신념으로 헌화하고자 한다.

불세출의 행장들의 주체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켜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선사,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불변불渝의 원신과 로고로 불세출의 미지막걸걸을 걸어나가야 한다.

모두다 당의 병진로선을 영원한 보검으로 끌어쥐고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자동지께서 계시여 최후승리를 위한 대회를 만드시 오고야마다는 억척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맹도업적을 끝없이 뒀다.

두사주의 전통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혁사적대업을 성취한 전인민대회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화려한 청년시리즈로 헌화하기 위해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오직 당시 당이 가리키는 혁진의 한길로 걸향없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품과 피상을 꽂피울 수 있다. 풀철한 창문과 밤하늘에 흰색의 청년시리즈로 민터우에서 자발적 국방공업의 터전을 얹혀같이 다지시고 만난 시련을 꽂고 헤치시며 주체혁명의 신념으로 헌화하고자 한다.

불세출의 행장들의 주체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켜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선사,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불변불渝의 원신과 로고로 불세출의 미지막걸걸을 걸어나가야 한다.

모두다 당의 병진로선을 영원한 보검으로 끌어쥐고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자동지께서 계시여 최후승리를 위한 대회를 만드시 오고야마다는 억척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맹도업적을 끝없이 뒀다.

두사주의 전통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혁사적대업을 성취한 전인민대회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화려한 청년시리즈로 헌화하기 위해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오직 당시 당이 가리키는 혁진의 한길로 걸향없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품과 피상을 꽂피울 수 있다. 풀철한 창문과 밤하늘에 흰색의 청년시리즈로 민터우에서 자발적 국방공업의 터전을 얹혀같이 다지시고 만난 시련을 꽂고 헤치시며 주체혁명의 신념으로 헌화하고자 한다.

불세출의 행장들의 주체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켜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선사,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불변불渝의 원신과 로고로 불세출의 미지막걸걸을 걸어나가야 한다.

모두다 당의 병진로선을 영원한 보검으로 끌어쥐고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자동지께서 계시여 최후승리를 위한 대회를 만드시 오고야마다는 억척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맹도업적을 끝없이 뒀다.

두사주의 전통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혁사적대업을 성취한 전인민대회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화려한 청년시리즈로 헌화하기 위해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오직 당시 당이 가리키는 혁진의 한길로 걸향없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품과 피상을 꽂피울 수 있다. 풀철한 창문과 밤하늘에 흰색의 청년시리즈로 민터우에서 자발적 국방공업의 터전을 얹혀같이 다지시고 만난 시련을 꽂고 헤치시며 주체혁명의 신념으로 헌화하고자 한다.

불세출의 행장들의 주체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켜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선사,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불변불渝의 원신과 로고로 불세출의 미지막걸걸을 걸어나가야 한다.

모두다 당의 병진로선을 영원한 보검으로 끌어쥐고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자동지께서 계시여 최후승리를 위한 대회를 만드시 오고야마다는 억척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맹도업적을 끝없이 뒀다.

두사주의 전통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혁사적대업을 성취한 전인민대회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의 화려한 청년시리즈로 헌화하기 위해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오직 당시 당이 가리키는 혁진의 한길로 걸향없이 나아갈 때 우리 모든 품과 피상을 꽂피울 수 있다. 풀철한 창문과 밤하늘에 흰색의 청년시리즈로 민터우에서 자발적 국방공업의 터전을 얹혀같이 다지시고 만난 시련을 꽂고 헤치시며 주체혁명의 신념으로 헌화하고자 한다.

불세출의 행장들의 주체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켜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선사,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불변불渝의 원신과 로고로 불세출의 미지막걸걸을 걸어나가야 한다.

모두다 당의 병진로선을 영원한 보검으로 끌어쥐고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자동지께서 계시여 최후승리를 위한 대회를 만드시 오고

주체조선의 강대한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신념과 의지의 분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평양 출발, 수도시민들 뜨겁게 환송

1면에서 계속

조국과 인민의 총복속에 유키백배, 기세 충천하여 나라의 국방력강화의 제1선창호로 떠나는 국방과학전사들의 빠스행렬이 대단거리, 동대원거리를 누비나갔다. 『사회주의전진가』 등의 노래선율이 울리는 연도에서 선교구역, 탐방구역의 각계층 군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뜨겁게 비벼주었다. 당을 따라 국가핵무력완성의 험난한 길을 강인한 의지로 끊고 해치며 바침내 강력위한 우리식의 무기체계를 만들어낸 개발자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믿음어린 정파전통적인사가 거리들에 넘쳐났다.

다시 한번 알아보자,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 이여! 남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완벽한 높이에서 실현한 결사판결의 선구자들의 두정기풍으로 알테미아에서 기적창조의 열풍을 일으켜가는 평양신발봉장, 애국편직봉봉장, 종업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열정의 활호를 울리고 또 울리었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앞장에서 옹호한 철학으로써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철필을 부르짖으며 최후방악하는 귀악한 원쑤들에게 다시 한번 존엄한 철주를 내린 국방

파학무분 전투원들을 데운 빠스행렬은 환송의 꽃불꽃이 설레이는 유품교를 지나 창전네거리에 들어섰다.

대성구역, 서성구역, 녀명원들이 불온기증을 절치고 모란봉구역 개선고급중학교의 학생취주악대가 박맥있고 기택넘친 노폐들을 주악하는 가운데 군중들이 쫓다발을 흔들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보다 큰 성과를 바랍니다』라고 웨치며 열렬히 환송하였다.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전하는 인민극장과 현대적인 초고층건물들, 봉사시설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력원에서 마음껏 누려갈 부강번영의 광명한 매일을 화신하는 위훈자들.

수도 평양의 용광화려한 모습, 시민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서 보다 높은 희망과 포부, 람구의 열망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고 떠나는 그들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새로운 신심과 용기가 용솟음쳤다.

그들은 당과 조국의 믿음, 인민의 기대를 심장속에 간직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강용한 기개가 실린 강위력한 주제판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개발생산하여 주제조선을 그 어떤 원쑤도 멈춰 못하는 세계최강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만방에 빛내여 갈 결의로 심장을 불태웠다.

군중들은 당의 국방봉업종시사상과 로선을 어떤 자리와 템포에서 날들며 어떻게 관찰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미대운 결사대원들처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이 땅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천하제일 강국을 만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열의에 넘쳐있었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수도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은 주체적 국방봉업발전에 빛아울리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정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행도따라 강대한 국력을 할

있게 꾸시한 기세드높이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우리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밟들어나가자

근로단체들에서 결의모임,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퇴계부문, 지령, 공군대, 국방일군, 육군, 해군, 공군원수, 국방원수 등에 각각 친해되었으며,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전원회의 결정을 세워나갈 예상이다.

보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의모임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직으로 밟들어나가기 위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의모임이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보임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재길동지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직원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즐하여온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하였다.

보임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재길동지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직원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는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친밀체, 행동의 통일체로 만물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시 계시한 5대 교양을 힘 있게 일깨 모든 직맹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열렬한 국자, 개급의 전위우사, 고성한 도덕의 전현우사로 청자히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경제계급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동역과 파악수술의 위력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행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릴 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전원회의 결정을 세워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

을 힘 있게 일깨 모든 직맹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열렬한

국자, 개급의 전위우사, 고성한

도덕의 전현우사로 청자히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했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했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했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했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했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했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했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나갈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울한 믿음을 당과 직맹원들이 저지른 자강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게 기여하였고, 그들은 대체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경수동지, 김해봉동합동체 위원장 김현철동지, 청리마제 강연합기업소로동자 김길웅동지가 토론했다.

그들은 모든 농군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장군님의 유종을 생겨

